

현대제철 '에이치코어', 프리미엄 내진강재 시장 '포문'

에너지 흡수력 높은 내진강재 친환경까지 포함한 브랜드로 확장 내달 2일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고부가 자동차 소재 차별화 주력

현대제철이 브랜드 이미지 강화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내진강재 브랜드 H-CORE(에이치코어)가 건자재 시장 프리미엄 강재로 자리잡은 가운데, 고객 맞춤형 자동차 소재 브랜드 H-SOLUTION(에이치솔루션) 등 다양한 브랜드를 새로 선보였다.

에이치코어는 2017년 전국민 대상 브랜드 공모전을 통해 이름이 붙여진 내진강재 브랜드다.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중심이 되겠다'는 의미로 명명됐다.

내진강재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각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닌 제품이다. 일반강재 대비 높은 에너지 흡수력·충격인성·용접성 등의 특성을 지녀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여준다.

현대제철은 앞서 국내에 내진 강재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던 2005년부터 연구 개발을 이어가며 관련 시장을 개척해왔다. 이후로도 형강·철근·후판·강관 등 각 분야의 내진강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내진강재 알리기에 힘 쏟고 있다. 건설사뿐 아니라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이치코어를 알렸다. 특히 드라마 PPL로 에이치코어를

H-Solution Technical Conference 2020

HYUNDAI STEEL 1st online conference

20.12.02 (WED) - 20.12.10 (THU)

16:00(KST, Seoul) | 15:00(CST, Beijing)
08:00(CET, Berlin) | 13:30(IST, New Delhi)

DATE/TIME

- Wednesday, December 02, 2020 | 07:00 GMT | 16:00 KST
- Thursday, December 03, 2020 | 07:00 GMT | 16:00 KST
- Wednesday, December 09, 2020 | 07:00 GMT | 16:00 KST
- Thursday, December 10, 2020 | 07:00 GMT | 16:00 KST

Presentation

- Automotive steel develop trend
- Introduction of H-SOLUTION
- Automotive Application Engineering Technology
- New Concept of Automotive steel development

Registration

Online conference page in H-SOLUTION webpage
<https://ae.hyundai-steel.com>

현대제철 '에이치솔루션 테크니컬 컨퍼런스 2020'.

쉽고 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에이치코어 범위를 내화용 및 친환경 강재까지 포함한 철강 브랜드로 확장했다. GR인증과 LCA, EPD 인증 등으로 ESG 경영에도 적극 활용 중이다.

현대제철은 2019년 에이치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철강 브랜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에이치솔루션은 자동차용 소재 및 솔루션 관련 브랜드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를 선도하는 차세대 강판 브랜드다. 친환경적 초고강도 경량 차체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에이치솔루션은 글로벌 고객사에 현

대제철의 고품질 자동차 소재를 홍보하는 것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력과 서비스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기술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에이치솔루션 전용 홈페이지와 AE 서비스 포털을 오픈하면서다. 기술 지원 플랫폼뿐 아니라 제품·응용기술/강종인증/컨셉트 차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웹사이트, 모바일 앱 동시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채널도 확대했다.

또 현대제철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차례에 걸쳐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고 국내외 고객에 현대제철 자동차 강재

및 관련 기술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주제는 '미래 자동차 소재의 전망' '필러 와이어 적용 TWB 핫스탬핑 용접기술' 등 첨단 자동차 소재 및 기술과 관련한 내용이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신강종뿐 아니라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알루미늄 등 비철 경량소재의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와 친환경 자동차 소재 등 모빌리티 소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제철은 2019년 내마모강 WEA REX(웨어렉스) 브랜드와 신규강종 2종을 출시하며 고부가 자동차 소재 차별화에도 주력했다. 웨어렉스는 기존 제품보다 경도와 가공성을 크게 향상한

판재 제품으로, '외력에도 닳지 않는 철'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현대제철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내마모강 시장에 선도적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웨어렉스가 차량뿐 아니라 산업용에서도 핵심 소재로 쓰여 브랜드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에는 강도와 성형성을 높인 고강도강을 울트렉스라는 이름으로 새로 내놓으며 주요 고성능 제품들의 네이밍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 인지도를 높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울트렉스는 '외부 충격에 강한 단단한 철'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강도 강판 브랜드로, 자동차 내외판과 구조재 및 새시에 최적화된 핵심 소재다. MS강과 ACP강을 비롯해 미래 핵심 강종인 3세대 강 AMP강과 Q&P강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3세대 강은 기존 초고장력강보다 한층 높은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보유해 높은 충격 흡수와 고성형을 요구하는 부품에 널리 쓸 수 있다.

현대제철은 앞으로도 웨어렉스와 울트렉스에 이어 내부식강/고성형강 등 주요 고성능 철강 제품들의 네이밍 체계 구축 및 브랜드화를 통해 고객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브랜드를 통해 현대제철 제품의 차별화된 특성과 기술력을 적극 알리겠다"며 "철강업계 내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브랜드 마케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글로벌, 국내 최초 친환경 콜드체인 배송

SSG닷컴 배송차량으로 시범투입 1시간 급속 충전으로 150km 주행 온실가스 연간 1.96톤 감축 효과

현대글로벌이 국내 최초로 전기트럭을 이용한 친환경 '콜드 체인' 배송을 시작한다.

현대글로벌은 26일 SSG닷컴 신선 상품 배송차량으로 1t(톤) 전기트럭 1대를 시범 투입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전기배송차는 1시간 급속 충전으로 150km를 주행할 수 있는 모델이다. 냉장·냉동 물류 수송에 쓰이게 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차체와 냉장·냉동칸 전기 배터리를 분리해 주행 효율을 높이고 화물칸 안정성을 제고했다. 단열 성능이 높은 설비를 탑재해 온도를 실시간 체크해 조절하는 모니터링 장비도 설치했다.

현대글로벌과 SSG닷컴은 앞으로 3개월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친환경 전기배송차로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 점검 및 보완, 내년부터 차량 투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배송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기차 배송서비스를 구축하기로 MOU를 맺은 바 있다. 1년 만에 협업이 구체화되면서 친환경 물류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현대글로벌은 친환경 전기차 도입



김진곤 현대글로벌 신성장물류사업부장(오른쪽)과 광정우 SSG닷컴 운영본부장(왼쪽)이 친환경 콜드체인 전기 배송차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현대글로벌

으로 환경 저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적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일 주행거리 50km 기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연간 1.96톤, 0.93kg 감축하는 것뿐 아니라, 200만원 연료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친환경 경영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콜드체인 시장에 대비하며 사업적 성과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리포트링크에 따르면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규모가 지난해 1527억달러(184조3404억원)에서 2025년에는 3272억달러(394조3414억원)로 두 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콜드체인 물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교한 작업을 필요

로 하는 만큼 전문 업체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현대글로벌은 지난 5월 콜드체인 물류 시장에 진출해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이를 SSG닷컴 배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글로벌은 친환경 물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환경 친화적인 물류 서비스를 화주사에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그린경영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그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202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아시아-팩시픽 지수와 코리아 지수에 6년 연속 등재되면서 환경경영 성과도 함께 인정받았다. /김재용 기자

현대로템, 국산열차 신호시스템 수주

일산선 시범사업 2공구, 96억 규모 무인열차 운행 위한 필수 시스템

현대로템이 철도 신호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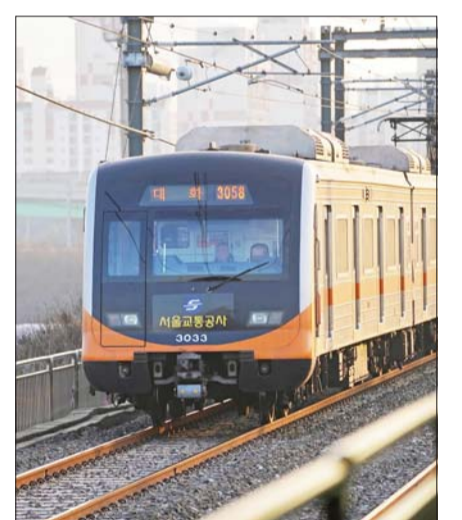
현대로템은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발주한 한국형 도시철도 신호 시스템(KTCS-M) 일산선 시범사업 2공구(대화역~정발산역)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약 96억원이다.

KTCS-M 기술은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 R&D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한국철도표준규격으로 제정된 신호 시스템이다. 무인으로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설치해야한다. 현대로템은 2014년 KTCS-M 기술 개발에 성공해 2018년 수주한 동북선 열차에도 관련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동안 서울 1~9호선 및 일산선, 과천선, 신분당선, 인천 2호선 등 도시철도는 외산 신호시스템을 적용해왔다. 추후 현대로템이 개발한 KTCS-M 신호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 절감뿐 아니라 유지 보수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연구개발과제로 개발된 KTCS-M 기술의 안정성과 호환성을 검증하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대로템 시스템은 2022년까지 건설하는 일산선 대화-백석 6.6km 구간에서 시범 적용하게 된다.

현대로템은 선로와 열차에 KTCS-



현대로템 KTCS-M 신호시스템 장치. /현대로템

M 신호장치를 설치하고 열차 출발부터 정차까지 모든 환경에서 무인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서울 3호선 1개 편성의 열차를 개조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KTCS-M의 성능을 검증하고, 추후 일산선 전체 노선과 분당선, 과천선 등 기존 노선에 이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5호선 등 신규 노선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KTCS-M 신호시스템 시장 규모는 2024년까지 약 5500억원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일산선 시범 사업으로 상용화 실적을 보유하며 국산 신호시스템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재용 기자